

2010 경북도의원 국제친선교류 결과보고서

(중국 하남성)



경상북도의회

목 차

I 친선 교류 개요	2
II 주요 활동 사항	6
III 하남성 현황	7
IV 하남성 방문지 주요내용	12
V 방문소감	33

I . 친선 교류개요

1. 목 적

자매결연 도시인 중국 하남성 의회와의 친선교류를 통한 협력증진과 민간외교 활성화를 도모하고 의원들의 친선교류를 통하여 중국의 지방정치제도와 경제·산업·문화 등 관련정보의 수집 관리로 효과적인 의정활동 수행

2. 개 요

- 기 간 : 2010. 11. 8(월) ~ 11. 11(목) / 3박4일
- 인 원 : 20명(의원 15, 기자 1, 수행공무원 4)
 - ※ 단장 : 의장 이상표
- 방문대상 : 중국 하남성
- 방문목적
 - 경상북도-허난성 자매결연 15주년 기념 친선방문
 - 경상북도의회에서는 2007. 12월 방문이후 그동안 교류가 없었으며, 9대 의회 구성이후 초청에 의한 방문
- 주요 활동내용
 - 하남성 인민대표대회 방문
 - 의원 간담회 및 친선교류 증진방안 토론
 - 경제·산업 및 문화환경시설 현지 방문·자료수집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록지 견학
 - 정동개발구(신도시), 무척발전소
 - 하남성 박물관 사적자료 수집 등

3. 교류단 구성현황

구 분	성 명	한 자	연 락 처	비 고
計	20名			
의 장	이상효	李 相 孝		단 장
기획경제	한혜련	韓 惠 蓮		
	황이주	黃 利 珠		
	정영길	鄭 永 吉		
행정보건복지	김종천	金 鍾 天		
	이경임	李 敬 任		
문화환경	이시하	李 時 夏		
	김기홍	金 起 弘		
농 수 산	김대호	金 大 鎬		
	이왕식	李 旺 植		
건설소방	곽광섭	郭 光 燮		
	이용진	李 庸 珍		
	홍진규	洪 晋 圭		
교 육	심정규	沈 鉦 圭		
	홍광중	洪 光 重		
의회사무처	신재걸	申 再 杰		
	김광훈	金 光 薰		
	최영창	崔 永 昌		
	허 삼	許 三		
기 자	최대억	崔 大 億		

4. 연수일정

일 자	지 역	시 간	세 부 일 정	비 고
11/8 (월)	인 천 서 안	06:50	○ 대구공항 출발	
		09:05	○ 인천공항 출발	
		11:30	○ 서안 도착 및 중식	
		13:30	- 진시왕릉 및 병마용 관람	
		18:00	- 청진사 및 비림 관람	
	서 안 낙 양	18:00	○ 석식	
		19:30	○ 낙양 이동(시속 325km) 고속철도	
11/9 (화)	낙 양	22:00	○ 석식	
	개 봉	08:00	○ 조식후 용문석굴로 이동	
		09:00	○ 낙양의 용문석굴 관람	
		10:00	○ 소림사 이동	
		11:30	○ 소림사 관람 후 중식	
	정 주	13:00	○ 정주(하남성)로 이동	
		14:40	○ 하남성인민대표 방문 - 공식행사 및 친선교류 체육행사	
11/10 (수)	정 주 체 류	21:00	○ 석식	
		09:00	○ 호텔 조식후 개봉으로 이동	
		전일	○ 포공사, 56미터 13층 불탑 관람 ○ 중국최고 테마파크 청명상하원 관람 ○ 정주 신동지구 신개발지역인 인공운하 「CBD」 유람구 견학	
11/11 (목)	정 주 인 천 대 구	22:00	○ 석식	
		09:30	○ 하남성 박물관 견학	
		14:40	○ 인천공항 도착	
		19:20	○ 인천공항 출발	
		20:15	○ 대구공항 도착	

5. 경상북도와 하남성 상호 비교

구 분	경 상 북 도	하 남 성
면 적	· 19천km ²	· 167천km ²
인 구	· 281만명	· 9,717만명(중국 1위)
행정구역	· 10시, 13군 · 전국 최대의 옹도	· 18시(성도 : 정주) · 중원 제1의 省
자매결연	· 9개 단체	· 19개 단체
주요산업	· 사과, 고추, 포도, 참외 - 전국 생산량의 1, 2위 · 포항제철, 구미전자산업단지 (철강, 기계, 전기, 섬유)	· 농업, 목축업 발달 (쌀, 밀, 면화, 연초 등) · 철도 교통의 중심, · 중국최대화물집산단지 (전자, 화공, 식품, 방직, 건축)
지역특성	· 신라천년의 수도(경주) · 한국대표의 3대문화 (불교, 유교, 가야문화) · 민족사의 중추적 역할 · 수많은 인재배출	· 중국 고대 3개 수도 (낙양, 안양, 개봉) · 예로부터 중원이라 불림 · 중국문화의 발상지 · 중국 제1의 인구, 광물자원
주요경제지표 (’05년)	· 7.2%, 전국 3위 · GRDP : 570억불 · 1인당GNP 16,291불	· 14.1%, 전국 5위 · GRDP : 1470억불 · 1인당GNP 1,461불
산업구성비	· 25 : 18 : 57(3차산업 위주)	· 18 : 52 : 30(2차산업 위주)
예산규모 (’05)	· 810억불(9조 65백억원)	· 220억불(425.8억위안)
교역량 (’05)	· 수출: 387억불 - 대 중국 수출 : 111억불(1위) · 수입: 228억불 - 대 중국 수입 : 34억불(2위)	· 수출 : 51억불 - 대 한국 수출 : 862백만불 · 수입 : 26억불 - 대 한국 수입 : 44백만불

Ⅲ. 주요 활동사항

1. 하남성 인민대표 방문

☐ 일 시 : 2010.11.9(화) 15:00

☐ 장 소 : 하남성

☐ 참석인원 : 20명

☐ 내 용

- 공식회견(인사말씀, 선물전달 등)
- 양의회 교류방안 논의
- 하남성 의회 본회의장 견학
- 친선교류 체육행사(탁구)

2. 하남성 인민대표단 환영만찬

☐ 일 시 : 2010.11.9(화) 18:00

☐ 장 소 : 소피아 호텔

☐ 참석인원 : 26명(경상북도20, 하남성 6)

☐ 내 용

- 상호 환영인사
- 친목행사 등

3. 테마파크(청명상하원) 비교 시찰

☐ 일 시 : 2010.11.10(수) 11:00

☐ 장 소 : 청명 상하원

☐ 참석인원 : 20명

☐ 내 용

- 중국최고의 테마파크 현황설명
- 테마파크 비교시찰 등

Ⅲ. 하남성 현황

- . 위 치 : 중국대륙 중앙(황하 중하류)
- . 기 후 : 아열대 온난대 지역, 년평균 13~15℃(1월 0.3, 7월 26.1)
 - ※ 강수량 : 연 570~1,120mm
- . 면 적 : 167,000km²(9,900만명, 인구 여전히 증가추세)
- . 행정구역 : 18시, 109현(성 소재지 : 쩡쩌우시)
- . 주요도시 : 쩡쩌우(鄭州, 700만명), 뤄 양(洛陽, 635만명),
카이펑(開封, 471만명), 상치우(商丘, 810만명),
신시양(新鄉, 550만명), 안 양(安陽, 531만명)
- . 산업별 주요도시
 - 행정교통 중심지 - 쩡쩌우(성 소재지)
 - 관광도시 - 뤄 양, 카이펑, 안양 등
 - 공업도시 - 뤄 양, 신시양, 뤄허(종합개혁시범시) 등
- . 지역특성
 - 황하강 유역에 위치 중화문명의 발상지, 13대 왕조가 번성했던 곳
 - 소림사, 포청천의 개봉부 소재
 - 7대 고도(古都) 중 3곳 소재(殷商-안양, 九朝古都-뤄양, 七朝古都-카이펑)
 - 4대 발명품 중 3대 발명품(나침반, 제지술, 화약)이 하남성에 발명
 - 중국 성씨(姓氏) 23,000개 중, 83개가 허난성에서 기원(전국 1위)
- . 행정조직
 - 21청, 5개 위원회로 구성
 - 직속기구 11개국, 2개실, 부문관리기구 4국
- . 의회제도 : 1부 2원제, 임기 5년, 79명 상무위원(947명 대표)
1개 전문위원회, 8개 일반위원회, 3개 사무기구

□. 교육기관

- 대학 : 83개 대학 145만여명(2년제 포함)
- 고등학교 : 959개 126만명(직업학교 포함)

□. 예산규모('10년) : 지방재정수입 20조 3,175억원(1,126億元), 10% 증가

□. GRDP('10년) : 약349조 4,581억원(19,367억원) 11.6% 성장

□. 1인당 소득 : 가처분소득 2,120불, 농민 순수입 709불(전국 17위)

□. 산업구조 : 1차 17.5%, 2차 52.6%, 3차 29.9%

□. 교통인프라

○ 철도, 항공, 고속도로의 요충지

- 1급 3개, 2급 8개 하천 항구 소재(전국 내륙성에서 1위)
 - ※ 칑쨈우, 뤼양, 카이펑, 썬먼샤(三門峽)에 황하 대교 건설로 황하 남북간 운수망 구축, 5개 컨테이너 운송선로가 칑쨈우를 통과
- 고속도로 건설상황 : 3,439km(전국 1위)
 - ※ 성소재지 칑쨈우에서 기타 18개시와 3시간 이내 접근 가능
- 철도 건설상황 : 3,944.2km(전국 1위)
 - ※ 징광(베이징-광저우), 징지우(베이징-구룡), 자오즈선(허난성 짜오쥘-산둥성 허저)과 닝시(닝뽀-시안) 등 철도간선으로 연결
 - ⇒ 참고 : 그림자료 I 허난성 - 교통망 현황

○ 국가교통부 허난성 중부지역 화물운송과 물류센터 건설 시범지역으로 선정

- 칑동신구내 칑쨈우 국가간선 고속도로 물류항을 건설 중, 완공 후, 물류내항에 해관, 동식물검역검사, 검사 및 관리기구 설치
- ⇒ 이에 수출입상은 물류항구로 가지 않고 수속을 밟아 화물운송이 가능

○ **항공발전현황 : 쑹저우, 뤼양, 난양 3곳에 비행기장 설치**

- 쑹저우 공항 4E급 공항이자 국내 1급 공항청사
- 매주 국내외 500여편이 운항, 그 중 국내 50여편 대도시간 연결
- 영국 MK, 태국 방콕 등 국제항공사 화물운송 6개 운항로 개통
- 홍콩, 타이베이, 쿠알라룸푸르, 서울, 동경, 마카오, 타이베이 등 지역에 부정기선 운항
- 중국국제항공 쑹저우 - 독일 프랑크푸르트(베이징 경유), LA 노선 개통
- 중국남방항공 쑹저우 - 파리, LA, 시드니 등 노선 개통

□. **경제산업**

- 안양철강그룹, 용청전기가스그룹, 핑딩산가스그룹 등 9개 업체
2006년 중국 500대기업에 선정
- 25개 기업이 중국 500대 제조기업에 진입
- '06 국가상무부 개최 '중국 최우수브랜드'에 허난성 9개 브랜드 선정
 - 슈양웨이(雙匯), 아이추(愛廚), 리엔화(蓮花), 신페이(新飛), 동방홍(東方紅), 위통(宇通), KF, LYC 등
- 허난성 생산제품의 전국 시장점유율
 - 소세지 70%, 컵라면 28.5%, 냉동만두 50%, 트랙터 40%, 대형운송차량 25%
 - 맥도날드, KFC의 반제품 원료의 90%가 허난성에 생산
 - ※ 위 통(宇通) : 아시아 최대 대형 운송차량 제조회사로 30여개 국가와 지역에 수출
 - 신페이(新飛) : 신페이 냉장고는 유럽과 미주 등지에 수출 중
- 식품가공업 판매수입 26조원(전국 2위)
 - ※ 허난성 창커쑹핀(长葛众品)식품은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
(중국식품계 유일한 미국시장 상장기업)
 - 허난성 슈양후웨이(雙匯, 중국 제1의 식품회사)는 연간 판매액 2조 6,000억원

□. **투자유치 및 대외무역**

- 세계 500대 기업 미국 월마트, 영국GKN, 독일 지멘스 등 36개 회사
18억불 투자유치 실현(50% 성장)
 - ※ 자오쥘(焦作)시 한국전력 진출
- 100억불(수출 51억불, 수입 26억불, 30% 성장)

□. 한국과의 교역현황

- '09년 1 ~ 12월 기준 對韓수출액은 118백만불
- '09년 1 ~ 12월 기준 對韓수입액은 329백만불

□. 과학기술 : 허난성 2006년 13개 항목 과학기술진보상 수상

□. 에너지산업

- 전국에서 5개의 220kw 변전소 성급 네트워크 시스템 보유
- 발전용량 3,340kw(전국 5위)
- 뤼양(洛陽)석유화학(허난성 최대 기업)의 원유 가공량 600만톤, 판매 수입 3조 8,220억원
- 허난성 가스층 개발공사 전국 4분의 1 차지

□. 천연자원 : 126여종 지하자원과 풍부한 동식물자원 보유

- 식물자원 199과 1,107속 3,830여종, 포유류, 조류, 파충류 418종
- 에너지 광물자원 6종, 금속광물자원 27종, 비금속광물자원 38종

〈 허난성 보유 광물자원 현황〉

- 전국1위 : 물리브덴, 란정석, 홍주석, 시멘트혼합용 점토, 진주암 등
- 전국2위 : 주조용 사암, 내화점토, 푸른 석면, 천연유석, 유리용 응회암
- 전국3위 : 마그네슘, 텅스텐, 레늄, 갈륨(Ga), 철광토, 시멘트용 대리암
- 전국4위 : 보크사이트, 흑연, 유리용 석영
- 전국5위 : 리튬, 세슘, 칼슘카바이드용 석회암, 석면용 현무암, 옥석

□. 농업 및 지역특산품

- 밀가루, 깨, 황색 및 홍색 마와 식용 버섯류는 전국 1위 생산액
- 면화, 유지류, 담배 생산량 전국 제2위
- 식량총생산량 600억kg, 10.3% 증가, 전국식량생산 10대 기지
- 쩡쩌우 상품교역소는 중국최대 식량 도매시장, 세계 곡물 표준가격 형성

지역명	특산품	지역명	특산품
신정(新鄭)	대추	링바오(靈寶)	사과
신양(信陽)	밤, 마오지엔차	종머우(中牟)	마늘
용청(永城)	고추	화이양(匯陽)	원추리, 넘나물
허인(河陰)	석류	네이샹(內鄉)	산수유
카이펑(開封)	수박	시샤(西峽)	미후도(복숭아류)
잉양(滎陽)	감	닝링(寧陵)	배
북부지역	4대 회약(懷藥)	엔링(鄆陵)	새양나무

※ 4대 회약이란? 산약, 지황, 우슬(牛膝), 국화

□. 목축업

- 난양 - 황소, 시옌현- 붉은 소, 비양 - 노새, 화이산 - 산양, 면양
- 화이난 돼지, 광둥오리, 구쓰 - 닭, 백조, 안양 - 토끼

□. 문화산업

- 쟁쩌우 - 뤼양 - 카이펑 - 쑤먼샤 황하강 유역 관광노선 개발
- 뤼양 모란꽃 축제(4월), 쟁쩌우 세계전통무술제(9월)
- 카이펑 국화축제(10월), 허난성 문화유산의 날(11월)

□.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 64개 단체(30개국)

- 한국 경상북도, 일본 미에(三重)縣
- 베트남 Dong Thap省, 태국 Chonburi府
- 미국 Kansas州, 캐나다 Manitoba省, 멕시코 Hidalgo州
- 브라질 Santa Catarina州, 아르헨티나 Entre Rios省
- 러시아 Samara State州, 벨라루스 Mogilev州
- 루마니아 Braila州, 헝가리 Komarom-Esztergom縣
- 벨기에 Walloon區, 프랑스 Saone-et-Loire省
- 오스트리아 Tirol州, 이탈리아 Puglia Region省
- 아이지리아 Grand Alger省, 에디오피아 Oromo州

※ 성급 우호단체 : 22개 단체, 시급 우호단체 : 42개 단체

Ⅳ. 하남성 방문지 주요 내용

□ 서안시

중국 섬서성의 성도이며, 행정구역은 8개의 구와 5개의 현으로 나뉜다. 관중분지(關中盆地)의 중앙부, 북쪽으로 위하[渭河]가 동류하고 남쪽에 종남산[終南山]이 솟아 있는 곳에 위치한다. 서안은 주(周)나라 무왕(武王)이 세운 호경(鎬京)에서 비롯되며, 그뒤 한(漢)나라에서 당(唐)나라에 이르기까지 약 1,000여 년 동안 국도(國都)로 번영한 역사적 도시로 그 동안 장안(長安)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왔다. 1943년에 시(市)가 설치되었다.

가장 번영했던 당대(唐代)에는 동서 9.5km, 남북 8.5km의 규모에 인구 100만이 넘는 계획적인 대성곽 도시를 이루어 멀리 서방에도 그 이름이 알려졌다. 그러나 당나라의 쇠퇴와 그에 따른 병란으로 장안도 파괴되어 쇠퇴하였다. 현재의 시역(市域)은 명(明)나라 때 구축한 주위 13km의 성벽으로 둘러싸인 구시가와 교외로 되어 있으며, 명·청대에 서안부(西安府)를 설치한 바 있으나 중화민국 때에 그것을 폐지하고 섬서성에 직속시켰다. 구시가는 당나라의 장안성을 중심으로 한 지역으로, 고도(古都)의 면모를 간직하는 한편 관공서와 상점 등이 밀집해 있다.

연평균기온 13.3℃, 1월 평균기온 -1.3℃, 7월 평균기온 26.7℃, 연평균강수량 604mm이다. 성 밖의 동교(東郊)·서교(西郊)에는 신흥공업지구가 형성되어 대규모 화력발전소가 건설되고 면방직·기계·항공발동기·비행기제조·전자공업 등이 활발하다. 특히 면방직공업은 규모가 큰 여러 공장이 가동되어 생산량이 많은데, 그 원면은 질·양이 다 같이 뛰어난 관중분지산(産)의 목화로 충당된다.

한편 남교(南郊)는 문교지구를 이루어 서안교통대학·시북[西北]공업대학·시북 전자과학기술대학 등 여러 기술 분야의 대학, 연구소 등이 모여 있다. 교통으로는 함양[咸陽]·동천[銅川]·연안[延安]·한성[漢城]·호계[戶縣]철도 등이 있다.

역사적 도시로 사적이 풍부하다. 남쪽 교외에 있는 자은사[慈恩寺]의 대안탑[大雁塔]은 현장(玄奘)이 창건한 45m의 7층 전탑(塼塔)으로 그 위에서 조망하는 관중분지의 풍경이 뛰어나다. 그밖에 북서쪽에 있는 천복사[薦福寺]의 서안탑[小雁塔]·양귀비(楊貴妃)가 목욕을 했다고 전해지는 청화지[華清池]·무루사[無漏寺] 등이 유명하다. 또 성내에 있는 역사박물관(옛 孔子廟)에는 부근에서 출토된 유물이 진열되어 있고, 북쪽의 비림(碑林)에는 당·송(宋)나라의 고비(古碑)가 많이 보존되어 있다.

□ 서안성벽

서안성벽은 중국에서 보전하고 있는 건축물 가운데 가장 완전한 고성중의 하나로 전체 길이가 무려 13.6km, 높이가 12m, 폭이 15m로 축조된 견고한 고성벽이다.

이 성벽은 명나라 홍무제 3년에서 11년까지에 걸쳐 건설되었으며 그 역사가 이미 600년에 이르고 있으며 고대 전쟁사를 보면 이 서안성벽은 유일한 출입통로로서 통치자에게 있어서는 방어를 하는 역할을 하는 성벽이다. 성벽은 동서남북의 4개문이 그대로 보전되어 있고, 주변에는 넓고 깊은 하천(해자)이 흐르고 정문에서 시작되는 가로지르는 조교가 놓여 있다.

1982년 7월에는 섬서성 정부의 주장하에 서안시민 십만명이 힘을 합쳐 독특한 풍경의 환성공원을 조성하였으며 성벽 윗부분에는 조그마한 화원을 여러 개 만들어 놓아 이로 인해 서안성벽은 단지 역사적인 건축물의 의미를 넘어서 공원과 성, 길, 물이 어우러진 공원으로 조성됨으로서 더 큰 의미를 갖게 되었다.

넓은 성을 둘러보게 하기 위해 관람 전동차를 운행하여 성벽위에서 시가지 전체를 관람하기에 편리하다.

□ 이슬람사원 청진사

서안이 국제도시로 명성을 날리던 당현종 때인 742년에 건립된 서안 청진사는 서안의 유서 깊은 유적 중의 하나이다.

이슬람 사원의 외양은 불교 사원과 같은 모습이지만,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이슬람교의 신앙에 따라 사원 안에는 신상도 보이지 않다. 동서 250m, 남북 50m의 장방형으로 이루어진 사원 내부는 4개의 구역인 진원으로 나누어져 있고, 1진원에는 9m높이의 목패방(木牌坊)이 있고, 2진원에는 이슬람력을 아라비아 숫자로 새긴 월비(月牌)가 있다. 월비는 이슬람과 중국 문화가 처음으로 만나던 시기의 중요한 유물이다. 가장 중요한 건물인 예배대전(禮拜大殿)은 약1,000명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규모이다. 사원 부근에는 흙벽돌로 지어진 오래 된 가옥들을 따라 난 길에서는 무슬림들의 생활상을 볼 수도 있다.

□ 낙양시

황하[黃河]의 지류인 중국 하남성서부 낙하[洛河] 유역에 위치한다. 중국의 7대 고도(古都)로 꼽히며, 성도(省都)인 정주[鄭州]와의 거리는 140km이다.

연평균기온 14℃, 연평균강수량 703.9mm이다. 부근 일대는 뤼허강 연안의 소분지로, 예로부터 화북평원[華北平原]과 위수[渭水]분지를 잇는 교통요지를 이루었다. 장안(長安 : 지금의 西安)과 더불어 중국 역사상 자주 국도(國都)가 된 곳으로 유명하다.

BC 11세기에 주(周)나라 성왕(成王)이 동방경영의 기지로 축성한 데서 비롯되며, 당시에는 낙읍(洛邑)이라고 하였다. 그 뒤 BC 770년에 주왕조가 현재의 섬서성[陝西省]의 호경(鎬京)으로부터 낙읍으로 천도한 뒤 동주(東周)의 국도로 변형하였고, 후에 후한(後漢), 삼국(三國)의 위(魏)·서진(西晉)도 이곳에 도읍하였는데, 후한 때부터 도성의 규모가 남북 9화리(華里 : 1화리=0.5km), 동서 6화리였기 때문에 구육성(九六城)이라고 하였다.

한편 정식명칭은 전한(前漢) 때에 낙읍(洛邑)으로 불리다가, 후한이 AD 25년에 국도로 정하면서 현재 명칭인 뤼양으로 고쳤다. 후에 북위(北魏)가 화북을 평정하자, 493년에 효문제(孝文帝)가 산서[山西]의 다통[大同]에서 이곳으로 천도하여, 구육성을 중심으로 시역(市域)을 동서 20화리, 남북 15화리로 확장하였다. 호수(戶數) 약 11만, 불사(佛寺) 1,378을 헤아렸던 당시의 모습이 양현지(楊銜之)의 《낙양가람기(洛陽伽藍記)》에 기술되어 있다.

수(隋)나라가 중국을 통일하자, 605년에 병란으로 황폐한 북위의 뤼양성 서쪽 15km 지점에 거의 같은 규모의 새로운 성을 건설하고, 장안의 부도(副都)로 삼아 동도(東都)라고 불렀는데, 지금의 뤼양의 전신이다. 당(唐)나라도 부도로서의 뤼양의 지위를 이어받아 동도하남부(東都河南府)라고 불렀으나, 수·당시대에는 서쪽의 장안이 정치도시인데 대하여 뤼양은 경제도시로 대운하를 따라 수송되는 강남의 물자 집산지로 변형하였다.

그러나 안사(安史)의 난(亂)이 일어난 뒤 쇠퇴하여 오대(五代) 때에 후당(後唐)의 국도가 되고, 북송(北宋) 때까지 서경(西京)이라고 불렀으나 원(元)·명(明)·청(淸)나라 때에는 지방도시로 일관하였다. 중화민국시대에는 한때 성도가 되었고, 1933년에는 남경[南京] 정부가 이전해 왔던 적도 있다. 1948년에 시(市)로 승격하였다.

오늘날 낙양은 다시 발전하여, 정주와 더불어 하남성의 2대 공업도시가 되었다. 중국 최대의 트랙터공장을 비롯하여, 베어링·유리·화학비료 등의 공장이 입지하고, 대규모의 면방직 콤비나트가 형성되어 있다. 한편 부근에는 석탄 및 기타 광물자원이 풍부하고, 또 대도시 중에서는 삼문협[三門峽]댐의 수력전기를 가장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거리에 있다. 한편, 미사일·항공기지 등이 있어서 군사적으로도 크게 중요시된다. 부근 농촌에서는 밀·옥수수·콩·목화 등의 농산물을 산출하며, 특히 목단화[牡丹花]가 유명하다.

연운항-란주[連雲港~蘭州]와 자오즈철도[焦枝鐵道: 焦作~枝城]의 교차점이며, 310·207국도와 고속도로가 지나고, 민항(民航)도 통한다. 교육기관으로는 낙양대학·낙양 의학원·낙양 중의학원[洛陽中醫學院]·낙양공학원 등 3,551개의 고·중·소학교가 있다.

문화유적으로는 중국 최초의 불교사원인 백마사[白馬寺]·중국 미술사상 중요한 문화재로 꼽히는 룡문석굴[龍門石窟], 이밖에 천진교[天津橋]·관린[關林]·낙양구무[洛陽古墓]박물관·목단[牡丹]공원·백거이묘(白居易墓) 등 명승지가 많다.

□ 용문석굴

龍門石窟은 현 낙양시 남쪽의 伊水 兩岸의 산자락에 조영된 중국 고대 3대 석조 예술품 중의 하나이다. 용문석굴이 처음으로 조성되기 시작한 시기는 北魏가 낙양성으로 천도한 전후(494년)이나, 대규모의 석굴이 조성된 시기는 唐대이다. 용문지역에 조성된 석굴의 총 수는 2,100여 개소로 이 중 唐대에 조성된 것이 1,260여 개소로 약 60%가 된다. 당대에 조성한 석굴은 수량이 많을 뿐만이 아니라 예술적 가치도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

용문석굴 중 발견된 紀年銘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唐대에는 貞觀 11년(637년)이 최초이며 가장 늦게 조성된 시기는 貞元 7년(791년)으로 대략 150년에 걸쳐서 조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용문석굴을 조성한 계층은 皇室은 물론, 귀족과 승려, 시장과 같은 사회조직, 街坊의 주민들뿐만이 아니라 외국인과 노비 등 매우 다양한 계층에서 석굴을 조성하였다.

용문석굴은 불심의 功德을 나타내고자 조성하였으며 석조상을 안치한 造像窟, 참선수행을 위한 禪窟, 시신을 매장하기 위한 瘞窟 등으로 구분된다. 석굴의 대부분은 조상굴이며, 선굴은 모두 7개소로 水源 인근에 조성되었고, 이굴은 단지 2개소로 모두 비구니의 시신을 안장하기 위하여 조성하였다. 선굴의 평면은 장방형, 천장은 平頂이며 선상을 배치하고 장식 조각을 하지 않았으며 굴의 보온을 위하여 前室을 조성하고 문을 설치한 경우도 있다.

용문석굴의 규모는 조성한 사람의 능력에 따라 석굴의 폭이 33.5m, 本尊佛의 크기가 17m에 달하는 奉先寺와 석굴의 폭이 30여cm에 불과한 아주 작은 것도 있으며 조성 형식면에서도 매우 다양하다.

이 중에서 비교적 신라의 석굴암과 규모와 형식면에서 유사한 석굴은 용문 서산 북부에 위치한 賓陽洞으로 中洞과 南洞, 北洞이 있다. 빈양동 남동과 중동은 북위 景明初(500년)에 高祖와 文昭皇太后를 위하여 조성되었다. 따라서 이 두 개의 석굴 형식은 서로 비슷하다.

賓陽中洞의 깊이는 12m, 폭 10.9m, 높이 9.3m로서 穹窿의 상부는 馬蹄形이며, 바닥은 蓮花 도안으로 장식되었다. 窟의 상부 중간은 활짝 핀 연화로 寶蓋를 조성하였다. 또한 굴 내에는 8좌의 伎樂天和 2좌의 供養天人을 배치하였다.

賓陽南洞은 중동과 같은 시기에 조성되었다. 窟의 깊이는 11.8m, 폭 8.70m, 높이 9.8m로서 굴 내의 조상은 불상 1좌와 2좌의 제자, 2좌의 보살상이 안치되어 있다. 主佛은 跏趺坐를 한 阿彌陀佛로서 높이는 약8m이나 상체는 커 보이고 하체는 작아 보이는 느낌을 준다. 굴내의 조상들은 매우 아름다운 것이 많아 북위시대에 조성하기 시작하여 隋대를 거쳐 唐대초에 걸쳐 조성된 것으로, 이 시기에 조성된 불상들은 대부분 현저하게 비례가 맞지 않아 사람들에게 어색하게 보인다. 이는 북위에서 盛唐시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형식의 특징이다.

賓陽北洞은 永平(508-512년)시기 中尹 劉騰이 世宗의 형상을 造像한 3개 굴 중의 하나로 세종 宣武帝의 공덕을 기리기 위하여 조성한 것이다. 굴의 깊이는 12.6m, 폭은 10m로서 굴의 상부는 穹窿形, 바닥은 연화문으로 조각하여 장식하였다. 굴내의 조상은 1좌의 주불과 2좌의 제자, 2좌의 보살과 천왕상 2좌를 배치하였다.



빈양북동의 내부

용문석굴은 외국인들이 낙양성에 머물면서 조영한 석굴도 많이 있다. 그 중에 신라승이 신라인상을 조성한 감실은 용문 서산북부 珍珠泉 남산중턱에 위치하고 있다. 감실은 동북향으로 신라를 바라보도록 위치한 것 같다. 감실의 높이는 180cm, 깊이는 160cm, 폭은 185cm이며, 감실내의 造像은 전부 없어진 상태이다. 그러나 감실내에는 7구의 조상이 안치되어 있던 흔적이 보이며 감실의 문 위에는 음각으로 '新羅像龕'이라고 크게 楷書로 조각되어 신라인이 조성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감실의 형식과 조상의 배치, 문자체 등을 보면 당 中宗에서 玄宗初(705-712)¹⁾에 신라승이 중국에 와 유학하면서

주1) 『龍門石窟·二(1992)』, p.203.

조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고대 한·중 불교문화교류 관계를 증명하는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 숭산 소림사(嵩山 少林寺) ⇒ 유네스코에 등재(2010)

숭산 팔경은 숭문대월(嵩門待月)·헌원조행(軒轅早行)·영수춘경(潁水春耕)·기음피서(箕陰避暑)·석조회음(石淙會飲)·옥계수조(玉溪垂釣)·소실청설(少室晴雪)·로애폭포(廬崖瀑布) 등이 있다.

숭산의 아름다움은 울창한 숲이 산간을 둘러싸고 있으며, 생기 넘치게 오가는 방문자를 맞는 것이다. 푸른 소나무가 서 있는 숭산의 최고봉 준극봉(峻極峰)에 바람이 불어와 높고 긴 소리를 내니, 졸졸 흐르는 물소리 같기도 하고, 큰 파도가 맹렬하게 포효하는 것 같기도 하니 정취가 끝이 없다. 대선협(大仙峽)·영소협(靈霄峽)·과빙애(掛冰崖)·수림동(水帘洞)·향담구(響潭溝)·회음루(回音樓) 등의 경치는 사람들을 황홀케 한다.

숭산은 아름다운 자연 경치 외에, 유교·불교·도교가 모여 일체가 된 종교적 명산으로 산 위에는 현존하는 여섯 가지가 세상에 유명하데 선종 조정 - 소림사, 현존하는 최대 규모의 탑의 숲 - 탑림, 현존하는 제일 오래된 탑 - 북위시기의 숭악사탑, 현존하는 제일 오래된 길 - 한산궤(漢三闕), 현존하는 제일 오랜 수령의 측백나무 - 한무제가 봉한 “장군백”, 현존하는 제일 오래된 별을 보는 관성대 - 고성원대관성대(告城元代觀星台) 등이다. 숭산은 진한(秦漢)시대 이후에 점차로 중악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하는 데, 진시황과 한무제는 모두 이곳에 와 하늘에 제를 올렸다.

□ 소림사(少林寺)

숭산은 신비로운 곳이 많고, 소림사는 멀리까지 유명하다. 군산들의 품안에서, 소림사는 차분한 소녀 같은데, 이곳에 오는 여행객들은 모두 발걸음을 조용히 천천히 옮기는데, 그녀가 놀라 꺾까 걱정한다. 소림사는 숭산의 소실산 북쪽 기슭의 오유봉 아래에 위치하며, 당대 이후에 승도들이 무술을 연마하였는데, 선종과 소림사는 곧 세상에 유명해 졌다. 지금 산위에는 보존이 양호한 “달마정”과 “천불전” 등이 있고, 천불전에는 명대의 유명한 “오백나한비로자나불”벽화가 있으며, 면적이 대략 300여㎡에 달한다. 오랜 세월의 풍상을 겪은 소림사는 오늘 날에도 여전히 상당한 규모이다.

徐金星은 조성년대를 당 高宗에서 測天武侯시기(650-704년)로 보고 있다.

소림사에 가는 도중에 몇 군데의 볼거리가 있는데, 웅장하게 우뚝 솟은 숭악사탑(嵩岳寺塔)·저세상 공포 분위기의 법왕사 채화·곽수경이 별을 보고 천문학의 기초를 닦은 그윽한 관성대·숭양서원의 비스듬한 “대장군 측백나무”, 마음이 평온하지 않고 몹시 화가 난 “두 번째 장군 측백나무” 그리고 관성대 동쪽에 일본군 포격으로 생긴 구멍은 로구교(盧溝橋) 근처 완평성과 똑같은 상흔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이곳의 모든 것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게 한다.

숭산에는 비석에 새긴 문자와 그림이 2,000여 건이나 되는데, 안진경(顔眞卿)과 송동파(蘇東坡) 그리고 황정견(黃庭堅) 등의 서예가들이 이곳에 귀한 글씨를 남겼다. 숭양서원 서남쪽에 높이 9m의 “대당숭양관기성덕감응지송(大唐嵩陽觀紀聖德感應之頌)”은 그중에서도 제일 큰 비석으로, 이 비석은 클 뿐만 아니라 구성이 치밀하다.

숭산 소림사의 중악묘는 작은 고궁이라고도 불리며, 건륭황제 재위 시 북경의 자금성을 본 따 중악묘를 대대적으로 손질하는데, 그리하여 중악묘의 배치가 고궁과 흡사한데, 주전 준극전은 대화전을 본보기로 한 것이다.

중악묘는 역대 황제들이 봉선 의식을 거행하고, 중악 산신을 제사지내는 곳이다. 측천무후는 만세통천(萬歲通天) 원년(696년)에 참배하러 숭산에 오르며, 이곳을 중악으로 봉하고, 중악신을 봉선하는 장소로서 중악묘를 선택하고, 게다가 숭양현(嵩陽縣)을 등평현(登封縣)으로 개명했다.

기세등등한 숭산과 웅장한 소림사는 중악묘를 두드러지게 한다. 숭산 준극봉에 올라 멀리 바라다보면, 황하가 가물거리고, 산기슭에는 명승고적이 뽁뽁하니 아주 장관이다.

□ 소림음악대전

소림사의 깊은 역사성과 무예의 참 의미를 음악대전을 통해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있다. ‘선종소림 음악대전’이라 불리는 이 공연은 숭산을 무대로 펼쳐지는 멀티미디어 쇼다. 700여명의 공연단원들이 음악과 빛을 이용해 소림사의 정산과 무술의 세계를 선보인다.

음악대전은 숭산을 자연 세트장으로 활용해 방에 열리는데, 해발 1400m 가까이 되는 산전체가 세트장이다. 산정산은 물론 능선에도 조명을 설치하여 조명을 받는 암봉들은 거대한 병풍처럼 보인다.

그는 소림 무술과 조화를 이루는 동양적인 음악을 통해 오스카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 공연도 바람, 물, 불빛, 나무, 돌 등 자연에서 얻어지는 5가지 테마를 소재로 극을 구성하여 소림 무술의 화려함과 자연의 소리가 조화를 이루게 하였다.

□ 정주시

정주는 하남성의 성도로 황하의 남쪽 기슭에 자리 잡고 있다. 이곳은 옛날부터 화북과 화남을 맺는 교통의 요충지였으며 지금도 중국을 열차로 여행하면 한 번은 통과해야 하는 곳이다. 정주에서 남서쪽으로 75km쯤 떨어진 곳에는 중국의 5악 가운데 하나인 중악(中岳), 즉 숭산(崇山)이 있고, 무술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소림사가 산기슭에 있다.

정주의 연평균 기온이 14.3°C, 강우량은 640mm이다. 정주 기온은 7월달에 가장 더우며, 월평균 기온이 27.3°C 이다. 가장 추울 때는 1월로서 월평균 기온이 -0.2°C 이다.

27 기념탑은 정주시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2·7광장의 중앙에 솟아 있는 탑으로 5각기둥 2개의 모양으로 되었있어 쌍탑(雙塔)이라고 불리워 지기도 한다. 1923년 2월 7일에 철도 노동자가 총파업을 한 기념으로 1971년 9월 29일 세운 것인데, 높이 63m으로 지하부분을 포함한다면 14층까지 있다.

망산풍경구(邙山景區) 황하유람구는 70년대 개발을 시작하여 80년대 중기에 이르러서는 상당히 규모가 크게 건설이 되었는데 정주시에서 가장 중요한 유람구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이름이나 있는 유람구역이다. 황하유람구는 정주시에서 서북쪽으로 30km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는데, 북쪽으로는 황하, 남쪽으로는 악산(岳山)이 있다.

황하수리 시설과 황하전망대가 있는 곳으로 이 곳에서 황하를 내려다볼 수 있다. 주위에 약3,000점의 석비를 가지고 있는 황하비림(黃河碑林)과 석각미술관, 우왕상(禹王像) 등이 있다.

□ 판관포청천의 사당 포공사

포증은 우리나라에서는 포청천(包青天)이라고 더 잘 알려져 있는 중국의 대표적 청백리이다. 포증은 송나라 인종(仁宗)이 넓은 소호(巢湖)를 하사하는 것을 사양하고 고향인 하북성 호성하(護城河; 성을 보호하는 해자 역할의 하천)의 작은 구역을 받았다. 그의 후손들이 호성하 하류에서 연뿌리를 재배하고 고기잡이로 생계를 삼았으므로 사람들이 호성하를 포하[包河]이라고 부르고, 호성하 안에 있는 작은 섬은 포섬[包島]이라고 불렀다.

상화둔은 포섬의 다른 명칭이다. 이곳에 있던 사당이 명나라 홍치제(弘治帝) 때 포공서원(包公書院)을 거쳐 가정제(嘉靖帝) 때 포공사로 명칭이 바뀌었다. 포공사는

밀폐식 삼합(三合) 정원으로, 조벽(照壁)·대문(大門)·이문(二門)·정전(正殿)·회난간(回欄杆)·청심정(淸心亭)·유방정(留芳亭)·염천정(廉泉亭)·직도방(直道坊)·동간(東杆)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건물의 분포가 치밀하고 주위의 울창한 대나무와 아름다운 꽃들과 서로 어울려 강남 원림(園林)의 특징을 나타낸다.

대문 양쪽에는 '충현장상(忠賢將相)' '도덕전가(道德傳家)'라고 쓴 대련(對聯)이 눈길을 끈다. 주 건물인 정전은 정면 폭이 5칸이며, 안에는 포종의 좌상(坐像)이 있고 벽에 석각 초상화 1폭이 있다. 정전의 왼쪽 당(堂)에는 죄인을 처벌하던 1.67 ~ 2m 길이의 작두가 3개 보존되어 있다. 3개의 작두 가운데 용두찰(龍頭鋤)은 왕공귀족을, 호두찰(虎頭鋤)은 문무대신을, 구두찰(狗頭鋤)은 서민을 참수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전한다.

염천정 안에는 염천(廉泉)이라 부르는 우물이 있는데, 옛 사람들은 그 물이 포종의 영기를 받아 권선징악의 효능이 있다고 믿었다. 이밖에 포공사에는 포공묘(包公廟)에서 출토된 문물과 포종의 아내 동씨(董氏), 만며느리 최씨(崔氏), 둘째아들 포수(包綬), 둘째 며느리 문씨(文氏), 장손 포영년(包永年) 등의 묘지명(墓誌銘)이 진열되어 있다.

□ 청명상하원 테마파크

청명상하원은 중국 국보 1호라고도 불리우는 청명상하도를 재현해 놓은 테마파크이다. 청명상하도는 약 1천년 전(북송) 수도 변경(卞京)의 도시생활을 그린 그림으로 당시 유명한 화가인 장택단이 그렸다.

그림의 실물의 크기는 폭 25.5cm 가로 길이 5m25cm로 현재 베이징 고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그림 속엔 사람이 700여명, 집 100여 채, 점포 34개, 가축이나 동물 60여 마리, 교량이 20여 개, 크고 작은 선박 20여 채가 묘사되어 있다. 화폭 앞 부분에는 양시정의 글이 들어 있다. 현재 이 그림은 상하이 엑스포 중국관에 첨단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700배 확대하고 사람과 동물이 스스로 움직이도록 하여 천년전 중국의 평화로운 도시생활을 스펙타클처럼 재현하고 있어 관람객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 진시황 병마용 박물관

진시황릉을 중심으로 꾸며진 진시황 능원(陵園)은 지하와 지상에 모두 꾸며졌으나 지금은 지상에 만들어진 부분은 거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고 지하에 만들어진 부분은 조금씩 출토되고 있다.

진시황릉 주변에서 출토된 것으로는 현재 진시황을 호위하는 병마용(兵馬俑)과 진시황이 생전에 사용했을 것으로 보이는 동마차(銅馬車) 등이 있는데, 이것들은 현재 박물관으로 꾸며진 곳에 수장되어 있으며 계속 출토 작업 중이다. 세계 8대 기적의 하나로 친다.

○ 1호갱(一號坑)

거대한 돔으로 덮인 갱으로 면적 1만 4,360㎡로 병마용박물관 중에서 가장 큰 것. 178~187cm 크기의 병사가 3열 횡대로 늘어선 6,000개의 병마용과 40여 승의 목조전차가 안치되어 있다.

이곳에 있는 병마용들은 대부분이 갑옷을 입고 손에 창, 긴창, 극 등의 장병기 및 궁노 등을 들고 있는 것으로 보아 대체로 중장비한 주력부대들임을 알 수 있다.

○ 2호갱(二號坑)

2호갱에는 1호갱보다 규모가 적어 900여 개의 병마용과 기병용 안마 116필, 전차를 멘 토마 350여 필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규모는 적지만 1호갱보다 다양한 모습의 병마용이 있어, 보병, 기병, 전차 등의 3개 병종을 혼합한 부대의 성격을 띠고 있다.

1호갱이 일반 주력부대라면 2호갱은 기동력 있는 주력부대를 보조하는 부대일 것으로 추정. 1994년 10월에 오픈하였다.

○ 3호갱(三號坑)

3개의 갱 중 규모가 가장 작아 병마용의 수도 가장 적다. 규모는 가장 작지만, 그 역할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른 2개의 갱은 전투 대열로 진열되어 있지만, 이것은 서로 머리를 맞대고 통로 양쪽에 정렬해 있는 모양이 아마 지휘기관을 보위하는 경위부대임을 알 수 있다. 이곳에서는 그 외에도 사슴뿔, 짐승 뼈 등이 출토되었다.

V. 방문소감

중국은 수 천년의 역사적, 문화적 유산을 가진 나라로 세계 4대문명의 하나인 황하문명의 발생지이다. 세계에서 3번째로 넓은 국토, 세계최대의 13억 인구, 세계최대의 소수민족들이 살고 있는 중국을 보고는 세상을 보는 스케일이 달라 졌다. 사회주의 · 공산주의 · 폐쇄주의 · 후진국가라는 중국에 대한 선입견이 완전히 무너졌다. 모든 부문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짜고 있는 변화와 개혁의 중국을 새삼 실감했다. 개방적이고 활달한 대륙인의 기질과 역동적인 생활자세가 돋보였다. 중국은 우리와 동일한 한자문화권이며,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 중의 하나이다.

이번기회에 우리 도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중국 하남성 의회를 방문하여 친선교류를 통하여 상호교류 증진 및 지속적인 교류방안에 대하여 의회차원에서 허심탄회한 논의를 전개 하였다.

특히 올해는 1997년 5월 23일 경상북도의회와 하남성 의회가 교류협력서를 체결한 13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이 시점에서 양 지역의 문화유산인 안동 하회마을과 경주양동마을 그리고 하남성의 소림사 일대가 함께 유네스코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는 뜻깊은 해에 방문하여 교류단 일행을 한층 더 뜻깊게 맞아 주었다.

이에 우리도의회에서는 환영행사에서 내년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개최시 세계문화유산 공동등재를 경축하는 의미에서 중국하남성의 무술 및 서커스대표단과 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들을 공식 초청하였다.

앞으로도 양의회는 신성장 동력국가로 동북아 경제시대를 여는 동반자로서 유대와 협력을 공고히 하여 상호교류를 통한 양도 자치단체 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진정 도민을 위한 의회가 되기를 이번 친선교류를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마련하는 시간이 되었다.